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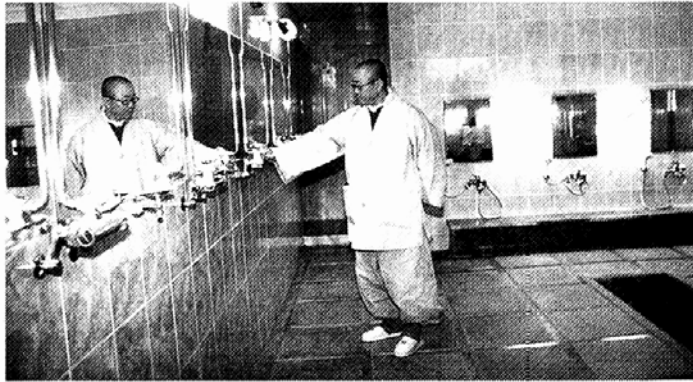
월드컵기간 중 고유의 민족문화가 깊게 스며있는 전통사찰을 외국인들에게 개방, 한국불교를 알리게 될 템플스테이(Temple Stay) 운영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템플스테이 사업의 준비에 사무국과 31개 사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사찰마다 독특한 프로그램 선보

템플스테이 어떻게 되거나



1. 시행, 두 달 앞으로...
2.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
3. 일본의 경우



◀직지사는 템플스테이 시설 개보수작업을 18일 완료했다. 직지사 포교국장 장명 스님이 목욕탕 시설을 점검하는 장면. 직지사=고영배 기자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12일 운영사찰 회의, 21일 참여종단 대표자 회의를 연이어 갖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1박2일 문화체험, 2박3일 수행체험 등 기본프로그램과 3박4일 사찰특성 프로그램을 개발, 각 사찰에 시달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사찰에서 1박을 하며 사찰음식을 접해 보고 예불, 참선, 발우공양, 인경, 다도 체험 등을 가능토록 했다.

수행체험 프로그램은 불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불교적 수행방법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범패시연, 녹차제작, 사경, 탑돌이, 선무도 등이 첨가됐다.

31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1회당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는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번에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사찰은 수원 용주사, 양산 통도사, 해남 미항사, 제주 광명사, 부산 삼광사, 서울 탑주심인당 등 6개 사찰이다. 80명 이상을 수용하는 사찰은 김천 직지사, 평창 월정사, 제주 약천사, 서울 봉은사 봉원사 등 5곳, 50명 수용사찰은 서울 조계사, 인천 전등사, 대구 동화사,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고창 선운사, 원주 구룡사, 속초 신흥사, 서울 관문사 등 9곳이다. 나머지 11개 사찰은 1회당 20~4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사찰의 경우는 대중방을 이용해야 하고 적은 인원을 수용하는 사찰은 2~4인용 방사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사찰들의 운영회합 프로그램으로는 월정사, 송광사, 백암사, 화엄사, 선운사, 금산사, 내소사 등 7개 사찰이 연등만들기, 암자 사찰 순례, 산행 등을 실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해인사 인경체험, 통도사 불화그리기 체험, 조계사 불교아트버룩 시장·전통놀이마당, 봉은사 목탁실수·인경체험, 전등사 염전·자연사박물관 체험 등이 실시된다.

또 봉원사 영산재 시연, 동화사는 서각 체험, 미항사 탁본체험, 직지사 태극권·탁본, 범어사 불무도 시연, 약천사 범종타 종체험·문화산책, 신흥사 산사음악회, 묘각사 전통 혼례재현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주경스님은 "4월 경이면 템플스테이 준비가 70%에 이를 것

불화그리기·인경·탁본 등 다양 1회 2천명 수용...최장 3박 4일

으로 보인다"며 "빠르게 업무의 가닥이 잡히고 있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음은 각 사찰에서 실시예정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다.

- 통도사 불화그리기 체험
설법전과 산내 암자 취운암 보살선원에 서 실시되는 통도사 템플스테이는 불교회화 전문 성보박물관을 둔 사찰답게 불화그리기 체험이 주력 프로그램이다. 불화그리기 체험은 거대한 괘불을 특수 디자인해, 개인이 직접 괘불의 조각 조각을 그리고 그것을 모두 한데 붙이면 하나의 거대한 괘불이 완성되게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 봉원사 영산재 시연

(주)한국전통문화포럼이 5월1일부터 외국인 불교문화체험(템플스테이)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하고, 개별여행사와 계약에 들어갔다.

(주)한국전통문화포럼(대표 방인철)은 이를 위해 순천 송광사, 서울 화계사, 파주 보광사, 고양 여래사, 보성 대원사, 순천 선암사, 김천 직지사, 대구 동화사 등과 사찰음식 또는 사찰순례, 다도체험실시에 협의했다.

전통문화포럼은 하루 1개 사찰에서 50~100명 정도 수용하여 다도 시연, 등

서울 신촌 봉원사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달간 매일 오전 11시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 불교종합예술 영산재를 시연한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범패(음악), 장엄(미술), 작법(무용)이 어우러진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50호)를 관람하고 불교음악의 진수를 느끼며, 발우공양을 직접 경험한다.

● 해인사 인경 체험
합천 해인사는 '대장경 경판 인경 체험'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보 제32호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 모조 경판에 외국인들이 직접 먹물을 바르고 인경하여 대장경의 인쇄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한다. 외국인들은 자신

외국인 불교체험 여행프로그램 개발

한국전통문화포럼 여행사와 계약 착수

만들기, 불교연극, 범패 관람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자원봉사자, 차인들의 외국어통역교육에 박차를 가

들이 직접 인쇄한 종이를 기념품으로 소장토록 하여 본국에 가셔도 한국불교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해인사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 대장경 전시 관람과 목재 채취에서부터 판각까지 경관 제작과정을 소상하게 소개하여 팔만대장경에 스며있는 불심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예정이다.

● 동화사 서각 체험
대구 동화사는 잘 다듬어진 목판 위에 외국인들이 직접 칼과 끌을 이용하여 경전 말씀이나 선구(禪句)를 새기게 하는 색다른 방식으로 외국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특히 목판 위에 한 자 한 자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그 글자가 드러날 때마다 느껴지는 환희심은 외국인들의 가슴에 오래남는 체험이 될 것이다.

● 미항사 탁본체험
해남 미항사는 부도 탁본체험을 한다. 부도 탁본은 부도 표면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을 종이에 있는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다. 미항사는 넝쿨과 이끼에 의하여 뒤덮혀진 채 오랜 풍상(風霜)을 견디어온 부도의 탁본을 통해 한국불교문화의 역사성을 외국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다.

● 전등사 염전체험
전국에서 품질이 최고로 손꼽히며, 우리나라 몇 개 남지 않은 천일염전이 소재한 강화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등사가 염전체험을 실시한다. 외국인들에게 정제된 소금이 아닌 햇볕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체험을 통해 한국전통 생활양식을 배우도록 한다.

● 묘각사 전통혼례
서울 묘각사는 전통혼례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세계적으로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통혼례식을 참관케 함으로써 부부가 서로 공경하며 인내하고 사랑하는 도리,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사회생활 영위, 일생 일대 경사로서 외국인들에게 축복의 의미를 함축한 한국전통혼례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한다.

김원우 기자 www.km@buddhap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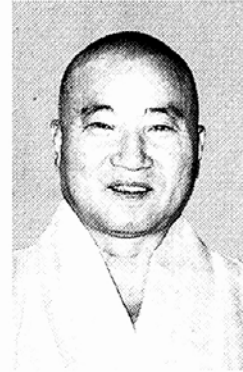
하고 있다. 사찰주변 여행지는 순천 낙안읍성, 보성차밭, 하회 민속마을, 선유도, 임진각, 도라산역을 연계시키는 독특한 여행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수준 높은 외국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방인철 대표는 이번 여행프로그램이 "본사와 말사, 조계종과 여타 종단을 적절히 배합한 템플스테이 여행프로그램으로 각 여행사에 자신있게 추천한다"라며 "30일부터 1차로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다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禪 학문적체계 정립 과제”

한국선학회 2대 회장 법산 스님



한국선학회는 16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을 임기 2년의 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선학회는 선학(禪學)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선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0

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근본이 선종이고 선학을 표방한 유일한 학회가 선학회인 것을 감안하면 종단적 호응이 없었다는 것이 큰 아쉬움이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변화가 있다는 말이다.

“선 수행자들, 선 계통 단체들과의 교분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학, 즉 학문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했으면 한다. 결국 목적은 수행이다.”

◆1기와는 달리 운영위원회에 동국대 선학과 강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학 과가 있는 동국대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야 한다. 그렇다고 선학과 출신 위주가 선 의적인 학문에 대한 배려는 결코 아니다. 선학과 주변 학문을 응용할 수 있고 서로 융화해

‘선과 예술’ 테마 학술회의 계획

종단적 호응 없음 큰 아쉬움

년 3월 18일 동국대에서 학자, 스님 등 300여명이 모여 창립한 단체다. 법산 스님은 “선이란 것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로 자리잡아가기 위해서는 현대 학문에 맞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선학회 2기 활동이 시작된 셈이다. 어디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

“를을 다지고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안에서부터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학문적 체계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어야 대외적으로도 가치를 뽐내고 꽃도 피울 수 있다. 경제학이나 정신분석학, 예술 등 주변 학문과의 학제간 연구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과 예술’ 등 선(禪)을 중심으로 한 테마 학술회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2년을 돌아본다면.

“2년만에 학회지가 3번이나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다. 한국선학회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선학 전공자뿐 아니라 과학이나 경제, 철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들의 참여도 두드러졌

야 불교학의 뿌리가 더 튼튼해진다. 또 그것이 불교학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의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선학이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수행의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경전이나 수행 방편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근본을 잃어버리기 쉽다. 선학이 선의 기본 정신과 여긋나는 것 같지만, 선 수행을 안내하고 어떤 수행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또 현대에 맞는 방법인지 찾아가는 것이 선학이 할 일이다.”

◆90년대 들어 불교학회 수가 엄청 늘었는데.

“불교학 관련 학회지만 20종이 넘는다. 월례 발표회를 갖는 학회 수도 늘고 있고, 그만큼 불교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 하지만 전공자들이 한정돼다 보니 발표 논문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됐다.”

권형진 기자 jmy@buddhapa.com

2002 한·일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성공기원 대법회

창건 이래 면면히 법등을 이어온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올해로 제 1357번째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불교의 중심지인 영남의 울산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2년 한·일월드컵과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행사에 범 불교인들이 동참하여 화합과 평화의 염원이 담긴 대회정신이 구현되기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일시 : 2002년 4월 17일 (수)
오전 9시 30분 보살계입제식
오전 11시 기원법회 동행
- 장소 : 통도사금강계단 광장

법회내용

- 괘불이운 (9시)
- 영산작법 및 괘불현괘 (9시30분)
- 기원대법회 (11시)

제 15교구 영축총림 통도사
성공기원법회 추진위원장 주지 현 문 합장

월드컵을 맞이하여 통도사를 찾는 내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험행사

● 템플스테이(Temple Stay)

- 참선, 발우공양, 전통등 만들기
- 월드컵만다라 괘불그리기
- 전통인쇄문화체험 (능화판 및 대장경판 인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182, 381-1442, FAX : 055-382-7196
http://www.tongdosa.or.kr / http://www.tongdosamuseum.or.kr